

“은퇴자 경륜·재능 살려 광양에 활력”

시, 은퇴자 프로젝트 48개 사업 추진 원스톱 지원 확대로 인구 문제 극복

광양시가 인구정책의 하나로 은퇴자 지원을 위한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를 강화한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는 은퇴 고령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했다.

철강과 향만 산업이 주축인 광양시는 지역산업 구조의 특성상 숙련된 기술자와 고소득 종사자가 많은 도시로, 새로운 일자리와 재능기부 등에 관심이 많은 은퇴자가 매년 약 2800명씩 발생하고 있다.

광양시는 올해 재취업·창업, 귀농·귀촌, 사회공

헌활동, 평생학습 등 4개 분야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은퇴자의 ‘활력 있는 노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취업·창업’ 분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은퇴자 공동체 관광두레사업 참여,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 등 은퇴자 기술 및 경험·아이디어를 연계해 20개 사업을 시행한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부암지구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을 실시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한다.

‘사회공헌 활동’은 광양시 은퇴재능 봉사단 운영,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도립미술관 도슨트(전문안내인) 양성교육,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 등 은퇴자 경력을 활용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지역주민 사회교육에 역점을 두고 은퇴자의 특성에 맞도록 인생 2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후진학 혁신지원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운영 등 4개의 특화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별도의 전담팀 회의를 통해 은퇴자 지원방향을 구체화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시행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확보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미 광양시 전략정책실장은 “광양시 인구 구조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퇴세대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시행계획을 토대로 은퇴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권익위, 24~26일 보성·구례·남원서 고충 상담

6개 기관 공동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24~26일 보성군·구례군·남원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24일 보성군청, 25일 구례군청, 26일 남원시청에서 각각 운영된다.

상담 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업, 교통 등 모든 행정 분야이며 지역주민과 행정

기관 간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서민금융 자금지원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고흥군민·공무원 150명 ‘사랑의 헌혈’ 행사

고흥군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군민, 공직자, 유관기관 근무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혈액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를 극복하고 이웃사랑의 실천과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은 앞서 고흥경찰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지사 등 유관기관을 찾아 헌혈 동참을 호소했다.

헌혈행사는 2개 팀으로 나눠 1팀은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2팀은 도양읍사무소와 고흥종합병원에



서 각각 진행됐다.

헌혈 참가자에게는 간염바이러스·간기능 검사 등 혈액 관련 7가지 검사결과를 제공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헌혈증서와 기념품을 받는다. 또 4시간 봉사활동도 인정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시, ICT 활용 스마트 농업 등에 1538억 투입

친환경·경제·혁신·복지 등 4대 전략농업 집중 육성

순천시가 쇠락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친환경농업과 스마트 팜 등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지역 농민 수는 최근 5년간 24%(7828명)가 줄어 2019년 말 2만4212명을 기록했다. 농업인 인구 중 65세 이상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면적도 최근 5년간 996ha가 줄어 2019년 말에는 1만2753ha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538억원을 확보해 ‘친환경농업’과 ‘경제농업’, ‘혁신농업’, ‘복지농업’ 등 4대 전략농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업 면적은 지난해보다 561ha를 늘려 2501ha로 확대하고 친환경 농자재와 새끼우렁이, 잔류 농약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신적 치유를 위한 ‘자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농산물에 치유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치유 마을을 육성하는 한편, 치유농업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승주읍에는 남해안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를 올해 착공하고 발효차와 발효음료, 장류, 김치류를 연구·개발하기로 했다.



순천시가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에서 조성한 흑두루미경관농업.

<순천시 제공>

농작물 생육환경을 스마트 장비로 자동 관리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팜 영농교육장도 올해 문을 연다.

농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재배 시설과 무인방제 시설 등을 보급한다. 점단 온실과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온실 원격 제어 등 스마트팜도 육성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농업’도 눈길을 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희망농정 소통위원회를 확대·운영한다. 덕일동 농업교육관 부지에는 연말

까지 혁신농업인센터를 건립, 선도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오이와 미나리, 참다래, 복숭아 등 8개 품목은 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

살고 싶은 농촌과 복지농업도 추진한다.

순천시는 지난달 농촌재생팀을 신설하고 농촌 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주민과 함께 농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 5일시장 157개 점포 노후전선·안전 점검

구례군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구례5일시장 노후전선 전면교체에 나섰다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진행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억7800만원(국비 2억3900만원, 지방비 2억3900만원)을 확보했다.

구례군은 오는 4월까지 구례5일시장 157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설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누전, 합

선인 점을 고려해 개별점포 내 옥내배선, 노후되거나 불량인 콘센트, 차단기, 분전반과 전등 등을 교체하여 화재위험 시설에 대한 정비와 안전점검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례군은 또 구례5일시장에 화재발생 시 소방서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올해 내 구축, 화재에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농협 여수지부, 화훼농가 살리기 꽃 구매 동참

NH농협중앙회 여수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 돕기 위해 22일 꽃 구매 행사를 열었다.



<사진>

앞서 지난주 여수원예농협은 400만원 상당의 꽃을 구매했다.

한편, 여수시는 매주 금요일을 ‘사랑의 플라워

데이’로 지정해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 운동으로 지역에서 재배한 안개꽃과 알스트로 메리아꽃 사주기를 펴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